

고흥 금산초, 온기와 행복이 가득한 '금산 축제 한마당' 성료

사랑나눔시장 운영 및 방과 후 학교 성과발표회 행사 진행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여 체험하는 시간 가져

고흥 금산초등학교에서 지난 23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금산 축제 한마당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금산 축제 한마당 1부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을 모토로 사랑나눔시장을 운영했고, 2부는 방과 후 학교 성과발표회가 운영됐다.

사랑나눔시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부한 물건을 모아 나눔 장터를 직접 운영한 8개 부스와 학부모회가 주관한 먹거리 부스까지 총 9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방과 후 학교 성과발표회는 1학년 대표 학생들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난타, 한국무용, 오카리나, 바이올린 등 방과후 부서의 13개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학기 전교학생회 회장의 끝인사로 공연이 마무리됐다.

금산 축제 한마당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

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체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방과 후 학교 성과발표회는 학생들의 공연과 작품 전시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여줬다. 또한, 학부모 난타 공연도 포함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꿈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였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특별한 두 가지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하나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진전으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의 협조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진을 대어하여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운영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고장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로 본교 특색교육활동인 우리 고장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사진과 학부모, 교사가 출품한 교육활동 사진을 전시했다.

과일떡 만들기 부스에 참여한 이시후 학생

은 "떡을 만들기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후배들과 대화도 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 됐다."며 말했다.

금산 축제 한마당 운영에 참여한 학부모회 김선화 회장은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오늘하루 긴장되고 힘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또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으며 수익금으로 기부도 한다고 하니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축제가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으며 양손에는 본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 그리고 행복함을 가득 쥐고 떠났다. 금산 축제 한마당이라는 큰 타이틀로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으며 더욱이 사랑나눔시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지역사회와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 기부도 할 예정이다. 다가올 연말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마음이 온기가 가득할 것 같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 노동초, '책놀이 리딩푸드' 진행



보성 노동초등학교 전교생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전남교육정보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책놀이 리딩푸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책놀이 리딩푸드'는 생태환경 관련 그림책을 읽고 내가 가져야 하는 감정을 여러 가지 푸드로 표현하면서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푸드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인성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4권의 생태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그 의미를 살려 요리 활동으로 구성된 수업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6학년 000학생은 "책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 음식 재료를 다양하게 요리활동을 하니 나의 진로와 생태 환경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척 재미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또 3학년 000학생은 "생태 환경 관련 책은 수업 시간에만 보고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요리를 한다고 하니 재료에 관심이 생기고 요리하

는 과정에도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하였습니다.

리딩 푸드에 활용된 도서를 살펴보면 환경 지표식물인 이끼를 다룬 도서 '이끼야 도시도 구해줘!'라는 책으로 감자 호박 만들기 요리 활동과 연관 지어 우리 주변 식물의 다양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바쁜 현대 사회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커피잔 포옹'을 보면서 가족의 감정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식빵 핫도그 만들기 활동과 연관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 온난화를 소재로 '이상한 휴가'로 고무파자 만들기, 지구촌 환경 문제를 다룬 '맑은 하늘 이제 그만'을 읽고 에그홀 토스트 만들기 등 생태 환경 도서와 요리 활동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5학년 000학생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책과 요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니 책 속의 내용을 생각하며 요리를 하면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요리하는 것과 재사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의미있는 수업이었어요."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초등학교에서는 12월에 차분하게 독서를 하는 환경을 만들고 '다독아'를 선정하는 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인문 교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성=김택순기자

화순초병설유치원, 놀이와 과학 융합한 체험학습 실시



화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7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놀이와 과학을 융합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 고려한 놀이 중심 과학 체험

이번 체험학습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신체 표현 놀이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여러 놀이공간 중 '빙글빙글 물의 여행'에서 공이 물의 흐름을 따라 공중 레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관심을 보였고, '알쏭달쏭 물 이야기'에서는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 즐겁게 낚시 놀이 체험을 하였다. '꿀벌 정글집'에서는 자연 속의 동식물을 관찰하며 생태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얼굴을 꿀

벌 정글집 속에 넣어 꿀벌이 되어보며 숲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3세 유아들은 평소 접하던 미끄럼틀과 다르게 생긴 큰 대벌레 미끄럼틀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신나게 대근육 놀이를 즐겼다. 4·5세 유아들은 꿀벌 정글집, 거미줄 클라이밍, 디지털 곤충 잡기를 체험하였으며, 거미줄을 살펴보고 거미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물체의 특성과 그 변화를 알 수 있었다.

화순=박순철기자

강진동초, 독서인문교육주간 맞아 벽화 프로그램 운영

교사와 학생들 64명 함께 모여 이야기 속 장면 그리

강진동초등학교가 지난 27일 독서인문교육주간을 맞이해 교사와 학생들 64명이 함께 모여 이야기 속 장면을 벽화로 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벽화그리기는 작년에 이어서 진행되는 학교 공간 꾸미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학생들이 스스로 가꾸어 가는 활동이다. 작년에는 '성장해 가는 우리들'을 주

제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고, 올해는 아침독서 시간에 읽은 책 속에서 감명 깊은 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모임을 통해 결정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은 오디오 복으로 자주 들었던 동화 속 이야기에서 바닷 속 장면을 떠올려 벽화 장면을 구성 하였고, 고학년 학생들은 온책 읽기 도서에서 주인공이 여행하는 장면을 통



해 다양한 풍경을 떠올려 벽화 장면을 구성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